

##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아수별 출산계획: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 정 균  
(한양대학교)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출산아수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및 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혼인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이웃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출산아수별로 나누어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혼인이주 초기의 출산 관련 행위에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

주요 용어: 혼인이주여성, 계층이동의 방향성,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추가출산, 출산계획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2016)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3A2043476)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논문에 대한 귀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투고일: 2016.10.25    ■ 수정일: 2017.2.2    ■ 게재확정일: 2017.2.7

## I. 서론

다문화사회로 들어서면서 혼인이주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이주 과정이나 결혼 적응 그리고 만족도와 같은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은 주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인 경우가 많다.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신고건수 중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국제결혼의 70%를 상회한다. 국제결혼이 정점을 이룬 2005년에는 국내 전체의 결혼에서 9.8%가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이었다. 이후 제도 정비와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 출신 여자와의 혼인이 줄어들면서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5).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는 사회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관련된 사안들이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다문화 학생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에 비해 약 20%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전체 학생 수 중 1.7%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2015년 대비 0.3%p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다수는 국제결혼에 따른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 2016). 학령별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외국인 여성의 출산에 대해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출생아수는 2014년 2.1만 명으로 2008년의 1.3만 명에 비해 58.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내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수가 약 1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전체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 관련 행위가 국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그들의 출산수준을 파악하거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확인하는 작업 등이다.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수준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대체로 국내 여성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김두섭,

2008; 김현식; 2015, 유정균, 2015; Kim et al., 2012). 이외에 개인이 지닌 특성이나 지역수준의 변수를 활용해 출산수준을 확인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들 모두 자녀수나 출산간격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김한곤, 2011; 김두섭, 송유진, 2013; 이삼식 등, 2007; 유정균, 김두섭, 2013; Kim & Song, 2015).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미 완료된 출산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반면 이 연구는 출산계획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모든 출산계획이 실제 출산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계획이나 의도는 출산행위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Schoen et al., 1999). 출산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자녀수가 많이 사용되는 편이지만 출산계획도 출산수준을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로 많은 분석에서 사용되었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송유진, 2014; 신인철, 2009; 신혜원 등, 2009; 이정원 등, 2014; 정은희, 최유석, 2013; Mitchell & Gray, 2007; Torr & Short, 2004). 반면,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과 관련된 연구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출산계획의 편차를 통해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관련 기제에 아들선호가 있다는 것을 밝힌 논문을 볼 수 있다(유정균, 2014).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자녀수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다. 기혼여성의 출생아수에 따른 출산계획의 편차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도,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기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석, 2007; 송유진, 2014). 이주 후 적응 과정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계층이동의 경험이나 외국인 비중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자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즉, 어떤 특성을 지닌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혼인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주 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적응을 잘 할수록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자녀수별로 나타나는 출산계획의 편차를 통해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상대소득이론과 출산수준

이 연구는 혼인이주여성의 이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에 주목하여 출산계획의 편차를 살펴본다. 혼인이주여성은 내국인 여성과 달리 이동을 통해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동 전과 후의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 차이를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혼인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계층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출산계획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소득이론(relative income theory)을 활용한다.

Freedman(1963)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기대소득(expected income)과 실제 소득(actual income)을 비교하여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차별출산력 분석에서 상대소득이 실제소득보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상대소득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각 계층 내에서 개인의 소득이 준거집단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을수록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출산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Leibenstein, 1975). Easterlin(1973, 1978) 역시 절대소득이 아닌 상대소득으로 출산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대소득과 출산의 정적인 관계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대체로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하더라도 상대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Chaudhury, 1977; Freedman, 1963; Stevens, 1981).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상대소득이론은 현재 소득의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Easterlin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수준을 준거로 삼은 반면, Freedman은 속해 있는 집단의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소득을 측정했다.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의 결정요인으로 절대적인 소득보다는 상대소득을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상대소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파악한다는 점이다. 혼인이주 전후의 계층적 위치를 비교하여 만든 계층이동의 방향성도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 이민자의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계층이동을 측정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이 각자의 모국으로 서로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사회계층 지위를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와 관계없이 비교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닌다(박재규, 2013). 또한 기존의 상대소득이론은 다른 세대나 소속 집단을 준거로 하고 있지만, 계층이동의 방향성은 본인이 인식하는 계층적 위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확실하다. 즉,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는 이주 전과 후의 계층적 위치를 동시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둘 간의 비교가 보다 명확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혼인이주여성이 이주 전과 후에 느끼는 경제적 수준(계층점수)의 차이를 상대소득(경제수준)의 의미로 활용하였다. 이주자의 계층이동은 이주 전과 후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따라 상향이동, 수평이동, 그리고 하향이동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상향이동은 이주자가 인식하는 계층 점수가 출신국보다 이주 후의 국가에서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모국에서의 계층적 위치보다 한국에서의 계층적 위치가 더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이주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향이동은 그 반대로 이주 후의 계층적 위치가 더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평이동은 계층지위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층이동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출산수준의 편차를 확인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계층이동의 방향성에 따라 출산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1970년의 출산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향이동을 한 경우 전체의 출산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Beane & Swicegood, 1979). 이는 상대소득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향이동이 가족의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oyd, 1973; Dahlberg, 2010). 하향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경제적 변화와 위기가 출산력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 후에 하향이동을 경험한 경우, 둘째 아이를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illingsley, 2010). 계층이동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를 분석한 위의 연구들은 상대소득이론과 출산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대체로 상대소득이론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 편차를 검증한다.

## 2. 이웃효과와 출산

출산계획의 편차를 확인하는데 사용된 또 다른 변수는 거주 지역 내 외국인의 비중이다. 혼인이주여성의 거주지역에 따라 출산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지역의 이웃 환경이나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출산행위 역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는 지역 내 사회환경과 개인의 행위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환경이 개인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 뒤르카임의 사회적 사실(social fact)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사실이란 사회나 집단의 성원이 개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부로부터 일정한 행위양식·사고양식·감정양식에 의하여 어떤 구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속이나 위압을 가리키는 말이다(Hughes et al., 1998). 사회적 맥락의 경험적 차이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결과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Brewster, 1994; Brooks-Gunn et al., 1993; Entwisle & Mason, 1985; Hirshman & Guest, 1990).

거주지의 특성에 따라 출산력의 편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은 'neighborhood effect'라 불리는 이웃효과 또는 동네효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 이론은 행위자와 지역 간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거주하고 있는 동네 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특성을 넘어서 삶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의 동네는 지역사회에 포함된 생태학적 단위로, 지역의 패턴과 상호작용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Sampson et al., 2002). 이러한 관점에 따라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이나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지역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웃효과와 출산력을 주제로 한 연구를 보면, 이웃의 자녀수 및 성별에 따라 추가 출산 의도나 계획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ultz-Nielsen, 2010). 또한,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웃효과와 출산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지역 내에 다른 가족의 자녀가 많으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여성보다 셋째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rsson et al., 2011).

최근 지역수준 변수가 가용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웃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인데, 이를 활용하여 출산, 만족도, 건강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두섭과 송유진(2013)은 주변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거주지 내 외국인 아내 비중은 출산력을 높이고

출산간격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인구 비중을 누적지표와 유동지표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출산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반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 Song, 2015). 이러한 결과는 이웃효과를 재는 변수의 종류나 구성에 따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웃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변수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효과의 양상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웃효과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내 외국인 비중을 연속변수의 형태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거주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특정 비중의 효과나 임계점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보완의 일환으로 같은 민족 인구비중을 비율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혼인이주여성의 소득과 고숙련직종 종사여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5%를 넘는 지역에서만 이웃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지원, 2015). 즉,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커지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이웃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를 크기에 따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산계획의 편차를 검증하고자 한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혼인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이 혼인이주자나 귀화자의 거주지로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입지계수는 지역에서 산업이나 인구집단 등의 특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수인데, 어떤 비율의 높고 낮음을 비교의 대상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판단할 때 주로 사용된다(이병길, 2013; Anselin & Williams, 2015; Brown & Chung, 2006; Cromley & Hanink, 2012; Isserman, 1977; Mack & Jacobson, 1996). 즉,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크다는 것은 거주지역 내에 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이 국내 전체의 평균에 비해 많이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혼인이주여성의 거주지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상대적인 비중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고, 또한 특정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기에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입지계수의 값이 1 보다 클 경우, 해당 지역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특화되어 있고, 반대로 1 이하이면 특화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1.2 또는 1.25 이상이면 해당 인구에 대해 집중화 또는 집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남기성 등, 2008; 민연경,

이명석, 2013; 이진영, 남진, 2012; Brown et al., 1996). 구간을 나누는 기준점은 연구 대상이나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0.75-0.80 / 1.0 / 1.20-1.25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r & Brown, 2006; Yuan & Fang, 2008). 이 연구에서는 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여 0.80 / 1.00 / 1.25를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출산계획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크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 내에 혼인이주여성 과 귀화여성이 많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주변의 도움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외국인 여성이 낮은 지역에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이나 지지가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주여성들이 집적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주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자본의 획득이 용이하다. 또한 이주민 공동체 내에 상호 호혜성,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등의 자원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커진다. 주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도움의 양에 따라 적응 정도가 달라지고, 이는 결혼생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적응을 잘 하는 이주여성들은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개연성이 크다.

### III. 가설 및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이 논문에서는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이론을 토대로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혼인이주여성들은 모국과 한국 양쪽에서 계층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주를 통해 나타나는 계층이동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이 모국보다 한국에서의 계층 점수를 높게 인식할수록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거주 지역 내 혼인이주여성 과 귀화여성이 많을수록 도움이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는 출산계획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개연성을 가진다. 즉,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크기에 따라 출산계획의 편차가



나타나고, 또한 특정 수준 이상의 입지계수를 지닌 지역에서 그 효과는 더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출생 순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가령 첫째야 출산계획에는 주변으로부터의 도움과 같은 지역적 조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둘째나 셋째 출산계획에는 외적인 요소나 주변 환경보다는 개인적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지역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1.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 편차는 이주 전과 후의 계층적 위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향이동을 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은 높고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은 추가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외국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혼인이주여성들이 추가 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기존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출생순위에 따라 개인 특성과 지역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이 연구는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건복지부 등, 2010)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표본은 중국(조선족), 중국(기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의 혼인이주여성 중 유배우자로 연령은 20-44세, 결혼시점은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표본은 32,731명이다. 아울러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를 구하기 위해 ‘2009년 외국인주민조사 현황과 ‘2009년 주민등록통계’를 사용하였다(행정자치부, 2010).

출산계획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계층이동의 방향성,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를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 여부이다. 그리고 가설을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가, 결혼기간, 재혼 여부, 아내와 남편의 교육, 가구소득, 주택 소유, 아내의 취업 경험, 거주지역에 관한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변수 조작 및 사용 변수
	계층이동의 방향성	상향이동: (혼인이주 후 계층 점수) > (혼인이주 전 계층 점수) 수평이동: (혼인이주 후 계층 점수) = (혼인이주 전 계층 점수) 하향이동: (혼인이주 후 계층 점수) < (혼인이주 전 계층 점수)
설명변수		$Q_{ij}$ = i 지역에 거주하는 j 인구 집단(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의 수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LQ_{ij} = \frac{Q_{ij}}{Q_i} / \frac{Q_j}{Q}$	$Q_i$ = i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수 $Q_j$ = 국내 전체의 j 인구 집단(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의 수 $Q$ = 국내 전체 여성 수
종속변수	출산계획	출산계획 있음=1 / 출산계획 없음=0
사회인구학적 통제변수		출신국가, 아내 연령, 아내 교육, 남편 교육, 아내 취업, 재혼, 결혼기간, 가구소득, 주택 소유, 거주지역, 자녀 성별 구성, 시부모 동거, 도시화

계층이동의 방향성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혼인이주 전의 계층 점수와 혼인이주 후의 계층 점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혼인이주 후의 계층 점수 파악을 위해 다음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한국에서 가장 못사는 가족(최하층)을 ①으로 하고, 가장 잘 사는 가족(최상층)을 ⑩으로 할 때, 귀하의 가족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리고 혼인이주 전 계층 점수는 “모국에서 가장 못사는 가족(최하층)을 ①으로 하고, 가장 잘 사는 가족(최상층)을 ⑩으로 할 때, 귀하의 모국 가족은 어디에 속합니까?” 문항의 응답값을 혼인이주 전 계층점수로 사용하였다. 이 두 문항의 응답값의 편차를 활용하여 혼인이주 전보다 이주 후의 계층 점수가 높은 경우를 상향이동, 그 반대의 경우를 하향이동,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수평이동으로 지칭하였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시·군·구별로 해당 지역 내의 혼인귀화여성과 혼인이주여성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지역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구하였다.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서 각 시군구별 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의 수를 산출하였고, 전체 여성의 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 전체 여성 중에 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이를 분모로 한다. 다음으로 분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여성 중 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구한 분자로 분모를 나눈 값이 입지계수가 되는 것이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지역이 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의 거주지로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특정 값의 크기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표 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귀하 부부는 앞으로 아이를 (더)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출산계획의 편차는 기존 자녀수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산순위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 3. 분석방법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에 따른 출산계획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이 수행되었다. 다층분석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이동의 방향성, 연령, 교육,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는 1차 수준의 변수와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도시화의 2차 수준 변수가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층모형분석이 필요하다.

다층모형분석은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이라고도 불리는데 서로 다른 수준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다층모형분석은 자료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분석과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개인 수준에서의 회귀계수를 더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수준의 변수들 간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수준이나 개인수준별로 분산을 구분할 수 있다(Bryk & Raudenbush, 1992). 아울러 조직수준과 개인수준의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생태학적 오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다층모형이 회귀분석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개인수준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집단이나 지역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또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이 위배되더라도 다층분석은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지역이나 집단수준의 자료가 가용해지면서 사회학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해당 분석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은 STATA 13.1을 활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분석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 절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로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연령을 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아내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조선족), 중국(기타), 필리핀 출신 아내의 연령 평균값은 각각 34.9세, 32.8세, 31.6세로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들의 결혼기간 역시 그만큼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이주여성의 연령은 출신국가별로 편차를 보이지만, 남편의 연령은 큰 차이가 없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42-43세로 집계되었는데, 캄보디아 아내와 남편의 연령 차이가 17.5세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베트남 17.1세, 필리핀 12.2세, 중국(기타) 9.6세의 순으로 이어진다.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변하는 변수 중 하나이다. 특히 혼인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주 전에 이미 교육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혼 전에 그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필리핀 출신 아내의 교육연수가 14.1년으로 가장 높는데 대부분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남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중국(조선족 또는 기타) 출신 아내가 그 다음으로 높고, 베트남(9.6년)과 캄보디아(9.1년) 출신 아내들의 교육수준은 낮은 편에 해당된다. 출신국가별로 나타나는 교육수준 차이는 모국에서의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의 편차는 뚜렷하지 않은 편이며, 필리핀 출신 아내와 결혼한 남편을 제외하고는 아내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내의 재혼율은 출신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의 아내들은 현 배우자와의 결혼이 재혼인 경우가 전체의 2% 이하로 매우 낮다. 그러나 중국(조선족)과 중국(기타) 출신 아내의 재혼율은 각각 25.2%, 23.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국(조선족) 출신 아내의 경우, 남편의 재혼율인 20.4%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편의 경우, 중국(기타) 출신 아내와 혼인한 남편의 재혼율이 23.0%로 가장 높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의 남편 20.7%, 베트남 출신 아내의 남편이 18.1%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필리핀 출신 아내가 36.3%로 가장 높고, 중국(조선족) 35.4%, 중국(기타) 30.5%의 순으로 나타나며,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11.5%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진다.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주택 소유여부는 거주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부모나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75.2%, 베트남 출신 아내 70.8%로 높은 반면, 중국(조선족 또는 기타) 출신의 아내들은 약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시부모 동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역시 캄보디아 출신 아내로, 전체의 56.0%가 시부모와 같이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출신 아내들의 시부모 동거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는 거주지역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전체의 과반수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은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출신 아내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대도시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중국 출신 아내들의 대다수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농촌지역 거주자는 전체의 약 11.0%에 불과하다. 거주지역의 이러한 차이는 주택 소유나 시부모 동거와 같은 요인들과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의 출산수준을 알 수 있는 평균 자녀수는 필리핀 출신 아내가 1.0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조선족) 0.93명, 베트남 0.88명, 캄보디아 0.86명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출산계획 부분을 보면, 자녀가 없는 여성의 첫째아 출산계획은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80.6%로 가장 높고, 베트남 75.4%, 필리핀 68.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출신국가에 따른 이러한 편차는 둘째아 출산계획에서도 유사하다. 캄보디아 출신 아내들은 전체의 58.6%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1.0%,

필리핀 49.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중국(기타) 아내의 출산계획이 가장 높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상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로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 및 출산 관련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 혼인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주요 변수 구성

	중국 (조선족) (9,265)	중국 (기타) (5,608)	베트남 (13,458)	필리핀 (3,000)	캄보디아 (1,400)	전체 (32,731)
아내 연령	34.9	32.8	26.4	31.6	25.9	30.3
남편 연령	42.9	42.4	43.5	43.8	43.4	43.2
아내 교육연수	11.8	11.7	9.6	14.1	9.1	11.0
남편 교육연수	12.4	12.9	11.7	12.2	11.5	12.2
아내 재혼(%)	25.2	23.6	1.8	2.0	0.9	12.2
남편 재혼(%)	20.4	23.0	18.1	14.4	20.7	19.4
아내 취업(%)	35.4	30.5	22.1	36.3	11.5	28.1
주택 소유(%)	52.6	52.3	70.8	62.6	75.2	61.9
시부모 동거(%)	21.2	28.4	48.2	40.2	56.0	36.8
거주지역(%)						
대도시	41.0	38.7	26.0	26.1	21.8	32.3
중소도시	48.4	49.6	46.9	47.6	48.3	47.9
농촌지역	10.6	11.6	27.0	26.4	29.9	19.8
자녀수	0.93	0.64	0.88	1.03	0.86	0.87
첫째아 출산계획(%)	52.4	59.3	75.4	68.8	80.6	64.4
둘째아 출산계획(%)	34.3	45.9	51.0	49.0	58.6	46.4
셋째아 출산계획(%)	9.9	21.4	19.9	13.5	19.5	15.3

자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2010).

## 2. 자녀수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산계획

### 가. 첫째 자녀 출산계획

출산계획은 기존 자녀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아울러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 혼인이주여성의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출산계획 여부를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3>과 같이 표시하였다. 자녀가 없는 여성들 중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4.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신국가별로는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80.6%로 가장 높고, 베트남 75.4%, 필리핀 68.8%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 여성이 81.5%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낳겠다는 비율은 줄어든다. 연령에 의한 이러한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난다.

아내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계획 여부의 차이는 있지만,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이상 72.0%, 고등학교 64.4%, 중학교 57.1%, 초등학교 이하 51.0%로 남편의 학력수준과 출산계획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의 취업활동 역시 출산계획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 경험이 없거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은 72.7%가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반면, 취업중인 아내들은 57.5%만이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출산계획 여부는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출산계획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지만, 100-199만원과 200만원 이상의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집단을 제외하고는 첫째 자녀 출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택 소유 여부는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첫째 자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주택을 소유한 여성 67.9%, 소유하지 않은 여성 59.8%로 제법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주택 문제가 결혼 및 출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표 3. 혼인이주여성의 자녀수에 따른 출산계획 여부

	자녀가 없는 여성		한 자녀 여성		두 자녀 여성	
	출산계획 있음 (6,656)	$\chi^2$	출산계획 있음 (7,615)	$\chi^2$	출산계획 있음 (918)	$\chi^2$
<b>출신 국가</b>						
중국(조선족)	52.4		34.3		9.9	
중국(기타)	59.3		45.9		21.4	
베트남	75.4	447.8 **	51.0	370.8 **	19.9	105.1 **
필리핀	68.8		49.0		13.5	
캄보디아	80.6		58.6		19.5	
합계	64.4		46.4		15.3	
<b>아내 연령</b>						
24세 이하	81.5		59.1		28.3	
25-29세	75.7		51.4		19.7	
30-34세	71.4	1,613.9 **	44.2	891.8 **	13.4	139.7 **
35-39세	54.4		29.9		9.5	
40세 이상	28.7		17.1		8.4	
합계	64.4		46.4		15.3	
<b>아내 교육</b>						
초등학교 이하	64.5		49.0		15.2	
중학교	63.0	10.3 *	47.5	15.7 **	20.1	46.7 **
고등학교	64.4		44.8		12.7	
대학 이상	67.6		45.3		13.4	
합계	64.4		46.3		15.1	
<b>남편 교육</b>						
초등학교 이하	51.0		40.3		15.1	
중학교	57.1	126.0 **	42.0	60.1 **	16.2	12.4 **
고등학교	64.4		46.6		14.0	
대학 이상	72.0		50.9		18.2	
합계	64.6		46.5		15.3	
<b>아내 취업</b>						
비취업	72.7	255.8 **	50.7	169.6 **	16.5	8.2 **
취업	57.5		40.4		13.8	
합계	64.4		46.3		15.3	
<b>가구 소득</b>						
100만원 미만	59.4		45.2		15.7	
100-199만원	64.5	11.6 **	45.3	0.5	13.9	3.3
200만원 이상	63.1		45.9		13.4	
합계	63.0		45.5		14.2	



	자녀가 없는 여성		한 자녀 여성		두 자녀 여성	
	출산계획 있음 (6,656)	$\chi^2$	출산계획 있음 (7,615)	$\chi^2$	출산계획 있음 (918)	$\chi^2$
<b>주택 소유</b>						
비소유	59.8	71.1 **	43.3	35.9 **	14.4	1.8
소유	67.9		48.1		15.7	
합계	64.5		46.3		15.3	
<b>거주지역</b>						
대도시	60.9	103.2 **	42.1	72.7 **	13.1	9.0 *
중소도시	63.6		47.1		16.1	
농촌지역	75.2		51.2		16.4	
합계	64.4		46.4		15.3	
<b>자녀 성별</b>						
여아 / 여여	-	-	49.6	35.9 **	20.7	73.8 **
남아 / 남남	-		44.6		14.5	
- / 남여	-				10.2	
합계			47.0		13.7	
<b>시부모 동거</b>						
비동거	58.9	279.5 **	42.5	158.8 **	13.7	20.7 **
동거	75.6		52.6		18.1	
합계	64.6		46.4		15.3	
<b>계층이동의 방향성</b>						
하향이동	56.0	138.7 **	38.4	177.4 **	12.4	18.8 **
수평이동	66.4		48.6		16.3	
상향이동	70.5		51.5		17.4	
합계	64.4		46.4		15.3	
<b>외국인 비중 입지계수</b>						
0.80	64.9	39.4 **	43.6	25.1 **	16.9	10.4 *
0.81-1.00	62.0		46.2		14.1	
1.01-1.24	61.4		46.2		13.4	
1.25-	68.7		48.9		16.5	
합계	64.4		46.4		15.3	

주: † p<0.10, \*p<0.05, \*\*p<0.01.

자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2010).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계획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대도시 지역 거주자가 가장 낮다. 거주지역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에는 출신국가나 주택

소유 등의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의 효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시부모와의 동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시부모의 압박 등이며, 다른 하나는 양육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이 비동거 여성에 비해 출산을 계획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두 가지 측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계층이동의 방향성에 따라서는 상향이동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출산계획 있음 응답 비율이 70.5%로 가장 높고, 수평이동 66.4%, 하향이동 56.0%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즉, 상향이동으로 인식할수록 첫째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향이동이나 수평이동에 비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의 출산계획 있음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1.25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의도가 68.7%로 가장 높고, 다른 지역과도 의미 있는 편차가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커질수록 출산계획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0.80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64.9%, 0.81-1.00은 62.0%, 1.01-1.24는 61.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입지계수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출산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 나. 둘째 자녀 출산계획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의 출산계획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는 다른 기제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합계출산율이 2.0이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둘째 자녀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고 일부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 자녀 출산부터는 아들 선호에 따른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 자녀의 성별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들선호에 따른 추가출산계획을 살펴본 기존 연구 결과,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에 아들선호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정균, 2014).

출신국가별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아내들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조선족) 출신 아내들의 출산 의도가 가장 낮다. 아내의 연령에 따른 출산계획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아내의 교육수준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다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에게서 조금 더 높아지는 뒤집어진 J자 형태를 보여준다.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내의 취업 경험은 첫째 자녀 출산계획과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을 한 경험이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가구소득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주택 소유는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계획의 편차는 현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도농 간 출산력의 편차가 존재하듯이, 출산계획 역시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상향이동으로 인식하는 여성들 중 51.5%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평이동 48.6%, 하향이동 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이동의 방향성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는 일관성을 보여준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역시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두 번째와 세 번째 구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큰 지역에 거주할수록 둘째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진다.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출산계획,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와 출산계획 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다. 셋째 자녀 출산계획

현재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셋째 자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5.3%이다. 물론 출산계획이 출산행위로 모두 연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셋째 자녀 출산에 사회경제적 특성이 미치는 효과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보다는 자녀에 대한 의식이나 가치관 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기타) 출신 아내들이 21.4%로 가장 높고, 베트남 19.9%, 캄보디아 19.5%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아내의 연령은 여전히 출산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연령이 낮을

수록 추가 출산에 대한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내와 남편의 교육수준별로 셋째 자녀 출산계획의 편차가 나타나는 하지만,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아내의 취업 여부는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차이가 첫째 자녀 출산계획이나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여성의 출산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는 경제적인 조건보다는 다른 사회심리학적 조건들의 영향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자녀, 한 자녀 여성과 동일하게 거주지역에 따른 출산계획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 중 13.1%가 셋째 자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소도시 거주자 16.1%, 농촌지역 거주자 16.4%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일수록 추가출산 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상향이동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17.4%가 추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수평이동 16.3%, 하향이동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 그리고 둘째 자녀의 경우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에 의한 일관된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0.80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출산의도가 1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25 이상인 지역 16.5%, 0.81-1.00 지역 13.9%, 그리고 1.01-1.24 지역 13.4%의 순서이다. 이는 주변 환경이나 거주지로서의 특화 정도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셋째 자녀 출산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은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주변 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3. 출산계획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에 따른 출산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층모형분석은 설명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기초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분산 중 집단 수준의(지역 간) 분산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한다.  $\eta_{ij}$ 은  $j$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  $i$ 가 출산을 계획할 승산로그(log-odds) 값을 나타낸다.  $\gamma_{00}$ 는 혼인이주여성이 출산을 계획할 전체의 평균 승산로그 값이며,  $\mu_{0j}$

는 전체의 평균 승산로그 값으로부터 떨어진 특정 지역의 편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tau_{00}$ 은 지역에 따른 종속변수의 분산 값을 나타낸다. 또한, 연구모형의  $\beta_{0j}$ 는 출산계획에 대한  $j$ 지역의 전체 평균 승산로그 값을 의미한다. 모형의 1차 수준에는  $k$ 번째 혼인이주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계수  $\beta_{kj}$  형태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2차 수준에는 지역 단위에서 측정되는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와 도시화수준 변수가  $W_{sj}$ 의 형태로 투입된다.

<기초모형>

1차 수준:  $Prob(\text{출산계획} = 1) = P_{ij}$   
 $\eta_{ij} = \log[P_{ij}/(1 - P_{ij})] = \beta_{0j}$   
 2차 수준:  $\beta_{0j} = \gamma_{00} + \mu_{0j}$ ,  $\mu_{0j} \sim N(0, \tau_{00})$

<연구모형>

1차 수준:  $Prob(\text{출산계획} = 1) = P_{ij}$   
 $\eta_{ij} = \log[P_{ij}/(1 - P_{ij})]$   
 $\eta_{ij} = \beta_{0j} + \sum \beta_{kj} X_{kj}$  for  $K > 0$   
 2차 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 W_{1j} + \gamma_{02} W_{2j} + \dots + \gamma_{0s} W_{sj} + \mu_{0j}$ ,  $\mu_{0j} \sim N(0, \tau_{00})$

다층모형으로 로지스틱분석을 할 경우, 1차 수준의 분산은  $\pi^2/3$ 로 고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ICC는 (1차 수준 분산)/(2차 수준 분산+ $\pi^2/3$ )로 계산이 가능하다(Snijders & Bosker, 2011). 이렇게 계산한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서의 ICC 값은 0.071이며, 이는 첫째 자녀 출산계획의 약 7.1%가 지역 간 차이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자녀 출산계획을 보면, 계층이동의 방향성에 따른 일관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수평이동에 비해 하향이동이나 상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 모두 출산계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크기에 따른 편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1.25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경우만 출산계획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보면, 아내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재혼인 경우,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계획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

로 아내와 남편의 교육, 그리고 취업경험 등은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구의 경제상태를 보여주는 변수인 주택 소유와 가구소득의 경우,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을 소유한 여성의 출산계획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째 자녀 출산계획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의 출산계획 의도가 높아지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자녀 출산에 대한 시부모의 압박 등이 그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양육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출신 아내보다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한 여성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을 지닌다.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는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의도에는 특정 변인들의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서는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어서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보면, 2차 수준 분산 값인 0.05를 활용해 구한 ICC 값이 0.015로 지역수준의 변수에 의해 둘째 출산계획의 1.5%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던 입지계수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지계수의 크기가 1.25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자녀수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거주지역 내의 혼인이주자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출산수준에 대한 의지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난다.

계층이동의 방향성에 따른 출산계획의 편차를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 출산계획에 대한 편차가 의미를 보이지 못한다. 즉, 혼인을 통해 계층적으로 낮은 위치에 머물게 되면,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의도가 약해지고 이는 낮은 출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진다.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보면, 개별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거의 일치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아내의 연령이나 부부의 재혼경험, 그리고 결혼기간은 여전히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과 시부모 동거는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자녀 출산계획까지는 시부모의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서 상반된 영향을 보였던 주택 소유와 가구소득은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첫째 자녀 출산계획 [연구모형 1]			둘째 자녀 출산계획 [연구모형 2]			셋째 자녀 출산계획 [연구모형 3]		
	Coef.	S.E.	O.R.	Coef.	S.E.	O.R.	Coef.	S.E.	O.R.
상수항	2.88**	0.30		1.71**	0.26		0.33	0.65	
개인수준 (Level 1)									
하향이동	-0.16*	0.07	0.86	-0.10†	0.05	0.91	-0.30*	0.13	0.74
상향이동	-0.16*	0.08	0.85	0.02	0.05	1.02	-0.10	0.13	0.90
중국 조선족	0.25**	0.08	1.29	-0.16*	0.07	0.85	-0.55**	0.17	0.58
베트남	0.00	0.09	1.00	-0.12†	0.07	0.89	-0.57**	0.19	0.56
필리핀	-0.14	0.14	0.87	0.08	0.10	1.08	-0.30	0.21	0.74
캄보디아	0.30	0.21	1.35	0.01	0.11	1.01	-0.14	0.35	0.87
아내 연령	-0.07**	0.01	0.94	-0.06**	0.01	0.95	-0.04*	0.02	0.96
아내 교육	0.03**	0.01	1.03	0.00	0.01	1.00	-0.01	0.02	0.99
남편 교육	0.03**	0.01	1.03	0.05*	0.01	1.05	0.06**	0.02	1.06
아내 취업 경험	0.27**	0.07	1.30	0.02	0.05	1.02	0.23*	0.11	1.26
아내 재혼	-0.86**	0.08	0.42	-0.20*	0.09	0.82	-0.22	0.31	0.81
남편 재혼	-0.82**	0.06	0.44	-0.76**	0.06	0.47	0.06	0.18	1.06
결혼기간	-0.02**	0.00	0.98	-0.01**	0.00	0.99	-0.01**	0.00	0.99
시부모 동거	0.23**	0.07	1.26	0.13**	0.05	1.14	0.08	0.12	1.08
주택 소유	-0.15*	0.06	0.86	-0.07	0.05	0.93	0.02	0.12	1.02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0.32**	0.09	1.37	0.08	0.06	1.08	-0.36*	0.15	0.70
가구소득 100-199만원	0.23**	0.08	1.25	-0.04	0.05	0.96	-0.28*	0.13	0.75
첫째 여아				0.22**	0.04	1.24			
첫째/둘째 - 여/여							0.38**	0.13	1.46
첫째/둘째 - 남/여							-0.51**	0.13	0.60
지역수준 (Level 2)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0.81-1.00	0.02	0.14	1.02	0.10	0.08	1.11	-0.26	0.16	0.77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1.01-1.24	-0.03	0.14	0.97	0.10	0.08	1.10	-0.30*	0.16	0.73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1.25-	0.30*	0.14	1.35	0.15†	0.08	1.16	0.02	0.16	1.02
도시화(인구밀도)	-0.02	0.03	0.98	-0.02	0.02	0.98	-0.02	0.03	0.98
무선효과									
지역수준 분산	0.26**	0.04		0.05**	0.01		0.00	0.00	
Wald- $\chi^2$	1,371.31		**	914.13		**	154.64		**
log likelihood	-4,005.27			-6,855.53			-1,302.68		
사례수	7,637			10,747			3,814		

주: 1) 하향이동 (하향이동=1, 기타=0); 상향이동 (상향이동=1, 기타=0); 중국 조선족 (중국 조선족 아내 =1, 기타=0); 베트남 (베트남 아내=1, 기타=0); 필리핀 (필리핀 아내=1, 기타=0);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내=1, 기타=0); 아내 재혼 (재혼=1, 기타=0); 남편 재혼 (재혼=1, 기타=0); 가구 소득 2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1, 기타=0); 가구 소득 100-199만원 (100-199만원=1, 기타=0); 시부모 동거 (동거=1, 별거=0); 주택 소유 (소유=1, 비소유=0); 첫째-여 (여=1, 남=0); 첫째/둘째 - 여/여 (여/여=1, 기타=0); 첫째/둘째 - 남/여 (남/여=1, 기타=0);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0.81-1.00 (0.81-1.00=1, 기타=0);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1.01-1.24 (1.01-1.24=1, 기타=0);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 1.25- (1.25 이상=1, 기타=0).

2) † p<0.10, \* p<0.05, \*\* p<0.01.

자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2010).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는 기존 자녀의 성별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봤다. 첫째 자녀가 여아인 경우, 출산계획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출산계획의 편차가 나타나고, 여아인 경우 높아진다는 것은 아들선호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등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혼인이주여성 개인의 영향일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나 주변 환경 등의 효과일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기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출산계획이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녀 출산계획을 살펴봤는데, 지역수준의 변수를 통한 설명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ICC가 0.001이다.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 최근의 사회현상을 고려했을 때, 셋째 자녀 출산은 극히 소수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자녀 출산계획이 있다는 것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높은 출산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면, 하향이동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은 많이 낮은 편이다. 즉, 계층적 위치의 변화에 따른 출산의지나 생각 등이 셋째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크기가 1.01-1.24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기 어렵다. 이는 달리 말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크기에 따른 일관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앞에서 첫째와 둘째 자녀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는데, 연령과 결혼기간은 부적인 영향 그리고 남편 교육과 아내 취업은 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중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경험한 여성들의 출산계획이 높은 것은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취업에 따른 효과일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를 많이 둔 여성들이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가구소득의 경우,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서는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소유와 시부모에 의한 효과도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자녀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보면, 그 편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두 자녀가 모두 여아인 여성들의 출산계획은 높은 반면, 남아와 여아를 자녀로 둔 여성들의 출산계획은 크게 낮아진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들선호현상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별 균형을 맞추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명의 남아를 둔 여성들도 남/여를 자녀로 둔 여성에 비해 셋째 자녀 출산계획이 높은 것은 여아에 대한 희망이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기존 자녀수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혼인을 통해 계층적으로 하향이동 했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자녀 출산 계획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향이동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혼인이주여성들의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혼인이주여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자본 등이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계획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혼인이주 초기에는 주변 상황이나 여건 등이 출산을 계획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어느 정도의 적응을 마친 후에는 개인적인 경제적 수준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개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을 파악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중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출산계획의 편차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수준을 분석의 대상과 분석 주제로 삼은 이유는 다문화사회에서 혼인이주여성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들의 출산과 관련된 행위는 국내 사회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으며, 다양한 지표나 사회현상을 통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다.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의 유형은 다를 수 있으나, 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혼인이주자, 노동이주자, 그리고 유학생의 범주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그 중 출산행위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혼인이주자이며, 또한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남성에게 비해 외국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의 출산에 대한

연구에서 혼인이주여성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작된 이 논문은 기존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를 활용하여 출산계획의 편차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즉, 상향이동을 경험했거나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주 초기에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변 지역의 환경에 의한 영향이 더 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층이동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존 자녀수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에서는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미치는 영향이 기존 자녀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는 상향이동과 하향이동 모두 출산계획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첫째 자녀 출산계획에는 계층이동의 방향성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크기가 1.25 이상인 지역에서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내의 혼인이주여성이나 귀화여성이 일정 수준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들로부터 지원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한 자녀를 둔 혼인이주여성의 경우, 하향이동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은 수평이동 경험자에 비해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향이동에 따른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높이는데 효과를 보여주며, 이는 입지계수가 1.25 이상인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두 자녀를 둔 여성의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서는 하향이동으로 인식하는 여성의 출산계획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경우에는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자녀 출산계획의 경우, 하향이동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효과는 많이 줄어들었다.

기존 자녀수에 따라 출산계획의 편차가 달리 나타나는 이 같은 결과는 계층이동 경험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수별로 구분해서 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계층이동의 방향성은 첫째 자녀보다는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

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이주여성들이 이주 초기에는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 수준이 올라가면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결혼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따라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혼인이주여성의 출산행위를 이해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출산계획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을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서 외국인의 행위나 심리적 변수 등에 미치는 주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대부분의 변수는 특정 인구집단의 비중을 연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투입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이 연구에서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중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계획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이웃효과나 주변효과 등을 살펴보는데 연속변수의 형태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특정 인구 집단의 집중 정도를 살펴 볼 수 있고, 또한 특정 구간별로 그 크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사회적 맥락에 따른 개인의 행동이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웃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입지계수를 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의 비중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웃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한 인구집단과 분석자료의 대상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지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과 귀화여성의 수를 사용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자료 역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이다. 실제로 전체 외국인을 활용해 만든 입지계수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웃효과나 주변효과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도움이나 지지들이 혼인이주자나 귀화여성과 같은 동일한 집단인 경우에만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웃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향후의 연구에서도 분석대상이나 연구주제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인구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반면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혼인이주여성의 차별출산력을 확인하는데 사용된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출산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인데, 이 조사는 혼인이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횡단조사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계획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앞으로 패널조사 등의 자료에 대해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더 적합한 분석틀의 수립 및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두 번의 조사가 더 진행되었지만 2012년과 2015년 자료에는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는 지역코드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수준의 변수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웃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에 대한 논의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웃효과나 주변효과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도 선택효과와 관련된 논의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웃효과를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한 인과 효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특성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횡단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향후 가용한 자료가 늘어나고 인과관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종단자료 등의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한계의 보완이 점차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혼인이주여성의 출산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지만, 이들의 출산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국내 사회의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는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국내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결혼 건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당분간 학령기 자녀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산수준의 변화가 인구구조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유정균은 한양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사업단 전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인구학, 가족사회학, 다문화 연구이다.

(E-mail: jungkyunryu@gmail.com)

## 참고문헌

---

- 강유진. (2007).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pp.639-653.
- 교육부. (2016). 교육기본통계, 홍보담당관실 보도자료. 세종: 동 부처.
- 김두섭. (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3), pp.1-26.
- 김두섭, 송유진. (2013). 거주지역 외국인 아내의 비종과 가구구조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주변효과의 검증. 한국인구학, 36(1), pp.51-74.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pp.97-116.
- 김한곤.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출산인식 및 출산행태의 차이. 민족문화논총, 49, pp.567-595.
- 김현식. (2015). 혼인이주자가족과 한국인가족의 출산력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5(1), pp.427-454.
- 남기성, 오민홍, 홍현균. (2008). 새로운 상대집중계수 NOHI 제안. e-고용이슈 2008-6호.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민연경, 이명석. (2013).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5(3), pp.365-386.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pp.55-73.
- 박재규. (2013). 한국사회 국제결혼 이민자의 사회계층이동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pp.59-85.
- 신혜원, 최명섭, 김의준. (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연구, 10(2), pp.33-47.
- 송유진. (2014).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

- 활과학회지, 25(3), pp.339-347.
- 유정균. (2014). 혼인이주여성의 아들선호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7(3), pp.79-105.
- 유정균. (2015).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수준 비교: 합계출산율과 출산간격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8(3), pp.49-73.
- 유정균, 김두섭. (2013). 혼인이주 여성의 상하이동 인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2), pp.45-67.
- 이병길. (2013). 포칼 입지계수를 이용한 중심지 성숙도 평가. *한국측량학회지*, 31(3), pp.221-228.
- 이삼식, 박종서, 김필숙, 김형석.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원, 유해미, 김문정. (2014). 1명의 영유아(만 0-5세) 자녀를 둔 취업모의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8(1), pp.47-80.
- 이지원. (2015).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소득 및 고숙련직종 종사여부의 결정요인 거주 지역의 민족구성 특성과 구직경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pp.386-420.
- 이진영, 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pp.85-100.
- 정은희,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pp.5-34.
- 통계청. (2015). 2014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대전: 통계청.
- 행정자치부. (2010). 2009년 외국인주민조사현황. 서울: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2010).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 행정자치부.
- Anselin, L., & Williams, S. (2015). *Digital Neighborhoods*. GeoDa Center For Geospatial Analysis and Computation. Working Paper Number 01.
- Baer, C., & Brown, T. (2006). Location Quotients - A Tool for Comparing Regional Industry Compositions. *Indiana's Workforce and Economy 2006*. (March).
- Bean, F. D. & Swicegood, G. (1979). 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and Fertility: A Re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pp.608-619.
- Billingsley, S. (2010). Downward Social Mobility and Fertility Decline in Russia.

*Stockholm Research Reports in Demography 2010: 1.*

- Boyd, M. (1973). Occupational Mobility and Fertility in Metropolitan Latin America. *Demography*, 10(1), pp.1-17.
- Brewster, K. L. (1994). Race Differences in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 Women: The Role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merican Sociology Review*, 59(3), pp.408-424.
- Brooks-Gunn, J., Duncan, G. J., Klebanov, P. K, & Sealand, N. (1993). Do Neighborhood Influence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2), pp.353-395.
- Brown, L. A. & Chung, S. Y. (2006). Spatial Segregation, Segregation Indices and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Population, Space and Place*, 12, pp.125-143.
- Bryk, A. S. & Raudenbush, S. W. (1992). *Hierarchical Linear Model: Applications and Dana Analysis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Chaudhury, R. H. (1977). Relative Income and Fertility. *Demography*, 14(2), pp.179-195.
- Cromley, R. G. & Hanink, D. M. (2012). Focal Location Quotients: Specification and Applications. *Geographical Analysis*, 44(4), pp.398-410.
- Dahlberg, J. C. (2010). Social Background, Social Mobility, and Becoming a Parent in Sweden.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11 Annual Meeting Program*.
- Easterlin, R. A. (1973).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 pp.170-227 in *Family Economic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edited by E. B. Sheldon, Philadelphia: Lippincott.
- Easterlin, R. A. (1978). What Will 1984 Be Lik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Recent Twists in Age Structure. *Demography*, 15, pp.397-432.
- Entwisle, B. & Mason, W. M. (1985). Multilevel Effect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Family Planning Programs on Children Ever Bor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pp.616-649.
- Freedman, D. S. (1963). The Relation of Economic Status to Fert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3), pp.414-426.

- Hirshman, C. & Guest, P. (1990). Multilevel Models of Fertility Determination in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1970 and 1980. *Demography*, 27(3), pp.369-396.
- Hughes, J. A., Martin, P. J. & Sharrock, W. W. (1998). 고전사회학의 이해. (박형신, 김용구, 역). 서울: 일신사. (원서출판 1995).
- Isserman, A. M. (1977). The Location Quotient Approach to Estimating Regional Economic Impacts.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43(1), pp.33-41.
- Yuan, J. X. & Fang, Y. H. (2008). Utilizing Location Quotient Technique to Analyze Preponderant Industry in Boji City, Shanxi Provi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Management*, pp.63-67.
- Kim, D. S. & Song, Y. J. (2015). Neighborhood Effects of Ethnic Composition on Fertility among Foreign Wive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4(3), pp.389-410.
- Kim, H. S., Kim, K. & Jun, K. H. (2012). Mate Selection Pattern and Fertility Differentials among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pp.235-278 in *Cross-Border Marriage: Global Trends and Diversity*, edited by Kim, D. 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ibenstein, H. (1975).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9(1), pp.1-31.
- Mack, R. S. & Jacobson, D. S. (1996). Core Periphery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A Location Quotient Approach. *The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26(1), pp.3-21.
- Mitchell, D. & Gray, E. (2007). Declining Fertility: Intentions, Attitudes and Aspirations. *Journal of Sociology*, 43(1), pp.23-44.
- Persson, L., Lundkvist, L. & Lundström, K. E. (2011). *Third-Birth- Fertility and Neighborhood Effects-Evidence from Sweden*. Paper for the PAA, Washington DC. 31, March.
-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pp.443-478.
-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 Fields, J. 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3), pp.790-799.
- Schultz-Nielsen, M. L. (2010). Peer Effects in Fertility - The Effect of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Chapter 4 in *Essays in Migration and Fertility*, PhD-thesis No. 2010:1 from Aarhus School of Business, Aarhus University.
- Snijders, T. A B & Bosker, R. J. (2011).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Thousand Oaks, CA: Sage.
- Stevens, G. (1981). Social Mobility and Fertility: Two Effects in On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5), pp.573-585.
- Torr, B. M. &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pp.109-130.

## Parity Specific Approach to the Birth Pla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tatus Mobility and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Ryu, Jungkyun**

(Hanyang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rth pla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and to verify the deviation of the birth plan using the 'direction of mobility' and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birth plan. Utilizing micro-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Korean-Chinese, Han), Vietnam, Philippine, Cambodia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Results show that the birth plan of women who recognized their status mobility as downward was lower than those who recognized it as horizontal or upward. Neighborhood effect exerts an independent effect on birth plan, apart from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However, neighborhood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areas where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r naturalized Korean women live. And the direction of status mobility has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plan of second or third childbirth than the first childbirth.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has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plans of first or second childbirth. These results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wives are easi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ir residence in the early stage of immigration and the influence decreases with the passage of time. Converse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nges in the hierarchical position include the possibility of relatively affecting more continuously.

---

**Keywords:** Foreign Wives, Direction of Mobility, Location Quotient of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Birth Plan, Additional Childbirth